

투데이

올 쌀 생산량 422만…31년만에 최저

통계청 최종 집계…내년 수급불안 우려

전남 82만9000t·전북 68만4000t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31년만의 최저 수준인 422만4000t에 그친 것으로 최종 집계돼 내년도 쌀 수급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별 쌀 생산량은 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이 82만9000t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 68만4000t으로 세 번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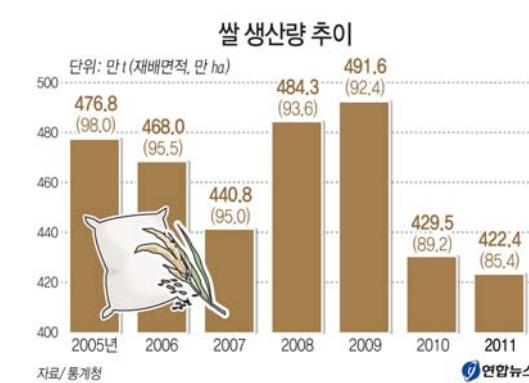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쌀 생산량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현백률(쌀 환산비율) 기준을 9분도(92.9%)를 적용할 경우 422만4000t으로 지난 해보다는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생산량은 냉해로 이례적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1980년의

355만t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현백률을 산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12분도(90.4%)로 적용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411만t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벼 재배면적은 논 면적이 줄고 벼 이외 타 작물 재배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3% 준 85만4000ha로 집계됐다.

올해의 단위면적(10a) 당 쌀 생산량은 496kg으로 전년의 483kg보다 2.7% 늘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조정 현백률 90.4%를 적용하면 482kg으로 나타났다.

도별 쌀 생산량은 벼 재배면적이 가



았고, 충남(80만5139t), 전북(68만4219t)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생산량(논벼·현백률 92.9% 기준)은 충남이 527kg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북 524kg, 경북 516kg, 대전 494kg 순이었다. 전남은 477kg에 그쳤다.

이처럼 2010년 429만5000t에 이어 올해 쌀 생산량이 422만4000t에 그친

이유는 올해 쌀 생산량이 422만4000t으로 내년 내년에 안정적인 쌀 수

급이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

고 있다. 정부는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민간의 헬쌀 수요량보다 18만t 정도 여유가 있어 “균형수급 수준”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쌀값상승을 기대하며 농민들이 출하를 지연하거나 유통업자들이 사재기에 나

서 일시적으로 수요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벌써부터 산지에선 헬쌀 출하를 늦춰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산지쌀값이 이례적으로 상승하는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정부의 공공비축미와 민간의 원료곡 매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7% 수준으로 다소 부진한 편이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17일 열린 신문발행인세미나에서 회원사 발행인들이 ‘SNS를 통한 신문독자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부산일보 최성훈 기자

신문협회 발행인세미나 “SNS 통해 독자 확대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7일 오후 5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신문 독자 확대 방안’ 주제로 신문발행인 세미나를 가졌다.

부산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을 비롯한 발행인들은 신문의 새로운 동향으로 등장한 SNS를 신문 경영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심성우 한양대 광고홍보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SNS 사용자의 이용 콘텐츠, 접근 경로, 프로필 등을 분석해 수용자를 세분화한 뒤 성향과 선호에 따라 맞춤화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며 “부서 또는 타깃 집단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SNS를 단순히 기사 전달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독자를 신문 페이지로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이어 “신문사 내 소셜미디어 전담 애니터를 두거나 파워블로거를 독자애디터로 양성해 개인화·전문화된 메시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무등산 ‘무돌길’ 51.8km 전 구간 완성

26일 화순구간 17km 개방

무등산 자락 ‘무돌길’ 코스 안내도



의 젖줄인 동복댐, 편백과 삼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안양산 휴양림 등이 위치해 있는 구간이다.

무돌길 동구 구간(광주역~중흥삼거리~화순 너와나 목장, 14.8km)과 북구 구간(각화중학교~담양 독수정, 12km)은 지난해 10월 개방됐고, 담양구간(담양 독수정~무동리, 8km)은 지난 7월에

/총행기자 redplane@

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7일 한미 FTA가 국민주권과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국회 비준 반대 성명을 제택했다.

시의회는 “‘투자자-국가소송권’(ISD)은 우리나라 입법 자율성과 주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고,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도 한국경제를 미국 투자자본에 종속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한미 FTA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추후 재협상을 빌미삼아 국회 선 비준을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삶의 중요한 결정권을 미국의 손에 맡기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일방적인 한미 FTA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진보연대, 광주·전남 민주화운동동지회 등은 19일 오후 2시 민주당 김동철 국회의원 광주 사무실 앞에서 한미 FTA 비준자지 광주시민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최경일기자 cki@

서재필 서거 60주년 2차 학술세미나

광주일보·기념사업회 주최…26일 보성기념관

송재(松齋) 서재필 박사 서거 60주년을 맞아 서 박사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한 제2차 학술세미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보성 서재필기념관에서 열린다.

광주일보와 서재필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8일 둑립운동가이자 언론인으로서 서 박사의 삶을 연구하기 위해 열린 1차 세미나에 이은 것으로,

구현말 개혁사상가이자 인술로서 조국에 봉사한 서 박사의 삶을 다루게 된다.

‘서재필 개혁사상에 대한 재조명’

을 다루게 되는 제1주제 시간에는 임재완 전남대교수가 밭표자로 나서게 되며, 정윤재 한국학 연장연구원 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와 오수열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한국동북아학회장), 이남섭 보성문화학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제2주제인 ‘미국 최초의 한국인 전문의 서재필’에 대해서는 정상우 전남대 의대교수(전 대한병리학회장)가 발표자로, 문형래 원광대 의대 교수(차기 대한병리학회장)와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총행기자 redplane@

이 대통령,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명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직에 공식 임명했다. 홍 신임 장관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 상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의 주요 부서 과장과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

SLS 이국철 회장 구속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한 뇌물의 대가성 입증이나 정권 실세로 뇌물 의혹 등 남은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6일 이 회장을 뇌물을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법적 사실과 같은 사실로 뇌물을 받았다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로 가기 전 서둘러 검찰청사를 떠나면서 “흐름을 강물로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금품 대가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고, 신 전 차관보다 자신을 먼저 구속한 점은 “아이러니하다. 돈은 사람을 구속하고, 받은 사람은 뛰어 있고, 그런 부분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0년 전통·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 이 치 료 치 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10725-중-9092호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끌려다니시는 분(빙의·신병)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환경이 들리시는 분
- 불면증 / 학습증진
- 기억력 회복 / 주체의 심하신 분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빙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선착순 5명모집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채용공고

기업 홍보, 판로개척 등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아리토(www.alitotk.kr)에서 회사와 함께 미래를 열어갈 참신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구분	모집부문	인원	자격 요건
경력	웹디자이너	1 명	포토샵, 플래시, 일러스트, HTML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신입	영업	약간명	영업활동에 관심있으신분
경력	영리	1 명	경리, 회계 업무가능자

2. 공동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나이 무관)
나. 웹디자이너 및 경리직은 여자에 한하여, 영업직은 남, 여 모두 지원 가능
다. 남자인 경우 고급, 또는 면제자
라. 해외여행에 결객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

가. 이력서(희망연봉 기재)
나. 자기소개서
다. 포토리얼(URLConnection포함)

4. 서류접수

가. 기간 : 2011. 11. 14(월) ~ 11. 22(화)
나. 방법 : E-mail 접수(support@alitotk.kr)

5. 전형절차

가. 서류 전형
나. 면접 전형

6. 기타

가. 각 전형별 합격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문의사항 (주)아리토 인사팀 채용담당자(Tel: 062-223-5111)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전국 스파치 기능 경시 및 유치부·어린이 응변 발표대회

●일시 : 2011년 12월 18일(일요일) 오전 9시

●장소 :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강당 (상무지구)

●주최 : 한국여성연예인연합회

●주관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파치·언설·리더쉽지도자과정)

●후원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시상계획

상의 종류	시상 훈격	수여 인원	시상 부문	부상
전체 대상	국회의장상	1명	전체참가 연사중 가장 우수한 연사 1명	대형 은배 장학금
전체 우수상	통일부장관상	2명	학생부(유치·초·중·고)와 대학원인부 중 가장 우수한 연사 각 1명씩	대형 장학금
각 부 대상	광주광역시시장상 전라남도지사상	10명	유치부·초등·중등자연, 중고등교학년, 대학원인부, 각 2명씩	트로피 장학금
각 부 우수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전라남도교육감상	12명	유치부4명, 초등자연학부, 중등교학부, 고등부 각 2명씩	트로피 장학금
단체 우승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연장상	3팀	초등부1팀, 중고등부1팀, 대학원인부1팀	우승기 장학금

■일고내용 : 우리말 우리말 바로쓰기 및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아래 소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하는 자유로운 한다.

- 우리말 우리글의 뿌리를 알고 바로쓰기 위한 방안
- 그 외 유치부는 자유제작 가능

■발표시간 : 유치부 2분, 초등부 3분, 중·고등부 4분, 대학·일반부 5분

■접수마감 : 2011년 12월 13일(화요일) 17:00

■접수처 : 508-23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42-2 (2층)
한국응변연설인증원회장

■대회장 : 김 쟁 열 (한국응변연설인증원회장)

■대회집행위원장 : 한 산 택 (한국응변연설인증원회 회장)

■심사위원 : 대회평가수상자 및 관